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콩나물 사건을 보면서)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한 갈릴레오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당시 교황청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이는 것이라니 갈릴레오를 정신병자 정도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뭘 모르면 이럴수가 있다.

그래도 교황청은 자비를 베풀어 네가 그간 연구한 연구논문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고 지동설을 철회하면 특사로 방면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갈릴레오는 할 수 없이 이 제안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락은 하지만 특사로 풀려나면서 그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란 말을 중얼거리게 된다.

몇년전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오재판이 잘못되었음을 공식 시인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19세기말의 헨리·립센하면 우리에게도 시인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의 단편 “사람들의 적”은 양측인들도 한번쯤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노르웨이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한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은 온천지대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려 주민들이 부유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누린다. 그런데 이

동리에 사는 한 의사가 연구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이 온천물은 유독물질로 오염되어 있어 피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동리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물론 관광객들이 피부병을 앓게될까 보아서가 아니고 자그들의 수입원에 영향을 받을까봐 불안한 것이다.

긴급 동리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감론을박 끝에 회의결과는 의사 스톡크만의 주장은 확실치 않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극비에 부치기로 결정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그리고 의사를 규탄하기 시작한다. 그를 동리사람들의 적으로 규정한다. 이책 제목이 사람들의 적이라고한 것도 이에 연유한다. 의사 스톡크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동리사람들의 적으로 몰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의 연구논문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의사 스톡크만은 말한다.

그래도 물은 오염되어 있다.

얼마전 콩나물에 농약이 잔류되어 있다는 보도후에 콩나물을 난지도에 버리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온적이 있다. 콩나물에 농약이 잔류되었다는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려고 하면 콩나물 생산자들은 대표자회의를 열고 그러한 주장은 확실치 않다. 콩나물에 농약이 잔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우리의 적



이다 하고 규탄해 왔다.

그래도 콩나물은 농약에 오염되어 왔고 드디어 난지도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갈릴레오시대나 19세기 노르웨이에서나 또는 콩나물 업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축산업계나 양계 업계에 있는 일은 아닐까?

계란이나 닭고기에 항생물질 잔류문제가 나올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왔었는가?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러한 주장은 확실치 않다. 시험연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흡수성 항생제만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휴약기간을 철저히 지킨다. 절대 그럴리 없다. 외국에서 항생제 잔류가 안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한 B대학 S교수는 양계인의 적이다.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를 규탄해야 한다. 이를 보도한 언론도 불매운동을 벌리자. 대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러한 논문을 발표한 교수는 시달리다 양계인들에 본의 아니게 누를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명하고 피로한 심신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하면서 그래도 항생제에 오염되어 있다고 독백을 할 것이다.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길이 열렸다고 한참 들뜬 분위기였다. 정부도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고 하면서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돼지고기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연일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그간 수출용 돼지는 수출용도에 맞게 길러야 된다는 항생제 잔류문제도 걱정을 해왔으나 사람들의 적으로 몰릴까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양계업계도 모기가 나오는 5월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의 길은 안개로 뒤덮인다.

발암물질이라는 피리메타민을 류코싸이토준병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언제 스톡크만 같은 사람이 나와 한국산 계란은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있다고 말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또다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주장은 확실치 않다” 그는 양계인의 적이다 라고 규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란을 난지도에 싣고가서 콩나물을 버린 그곳에 버려야 하고 이 장면을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가축위생연구소 동물약품조합 사료협회 양계협회 등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저녁 9시 뉴스시간에 안방에 앉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착잡한 심정이겠지만. **양기진**